



가네쉬와르 스님

(인도 쿠시나가르 마하파리니르바나사 주지)

“좋은 생각을 하면 건강해 집니다”

부처님의 열반 성지에 세워진 최초의 현대 사원은 마하파리니르바나(Mahaparinirvana, 열반당 열반사다. 인도인이 아닌 미얀마 스님들의 원력에 의해 세워졌다. 1895년에 부처를 사들이고 7년 뒤인 1902년에 완공했다. 그들이 사원을 짓고 수행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열반성지는 새로운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27년 지금의 열반당이 지어지는 과정에도 그 두 미얀마 스님의 역할은 컸을 것이다. 힌두교가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국의 수행승들이 2500년 전 부처님이 <열반경>을 설하신 곳을 성역으로 되살렸다는

것은 사뭇 몽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가을 하늘이 청명한 날, 용인 보문정사주지 탁산에서 만난 가네쉬와르 스님(73세)은 열반당을 복원한 두 스님 중 한 분인 찬드라마니 스님의 제자다. 찬드라마니 스님은 미얀마와 인도를 오가며 활동한 고승으로 1956년 암베드카르 박사가 인도의 힌두교도 10만명을 불교로 개종 시켰을 때도 힘을 보탤었다. 가네쉬와르 스님은 그런 스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미얀마의 남부지역 '야카인'이라는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가네쉬와르 스님은 14세

때 출가 했다. 영국의 식민지 아래 잦은 전란으로 불안하던 시절이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 소년인 인근 마을의 사찰의 도움으로 살다가 출가를 하게 된 것이다. 스리와 양곤 등지에서 공부할 하면서 사원 생활을 한 가네쉬와르 스님은 불교대학과정 등을 마친 25세에 인도로 건너갔다. 스승 찬드라마니 스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에 달려간 그 곁에서 쿠시나가르에서 평생 보내게 된 인연의 길이였다.

쿠시나가르 마하파리니르바나 사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인도어와 영어를 배워야 했는데 인도의 초등학교에서 꼬마들과 함께 글을 배우며 놀림도 받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장난이 나의 내내심을 키워주는 공부였다”고 회고하는 가네쉬와르 스님은 “1972년 스승님이 입적한 뒤 인도로부터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그 위기를 극복한 열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원에서 법회를 꾸준히 하면서 공직자들을 설득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스님이 미얀마 국적을 포기하고 인도로 귀화하는 것이었다.

불교신자가 거의 없는 쿠시나가르에서 가네쉬와르 스님의 존재는 매우 중요했다. 힌두교도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승려가 되기도 했다. 1980년부터 미얀마와 인도의 교류가 본격화 되면서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고 1986년에는 인도불교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인도 정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쿠시나가르의 열반성지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가네쉬와르 스님은 인도정부와 열반당의 공동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의 현대불교 운동을 주도해 온 마하보디 소사이어티(Mahabodhi Society, 대각회)의 최고사결정권을 가진 운영위원 5인 가운데 한 분이다.

가네쉬와르 스님은 “한국불자들이 인연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했다. 인도 성지순례가 확산되면서 한국불자들을 접할 기회도 많았고 열반당 인근에 한국사찰(대한사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한국 스님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스님은 “그런 인연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참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은 한국의 불자들을 향해 아쉬운 점도 털어 놓았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불자들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이웃을 돌보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명상(위빠사나, 참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때 더 관심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가네쉬와르 스님은 열반당에서 관람료를 받지 않도록 ‘고집’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스님은 “부처님의 열반성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누구나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리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맞서고 있다.

“세계의 종교 지도자가 무슬림, 기독교, 불교 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스님들이 포교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불자인데 자녀들은 절에 다니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네쉬와르 스님은 한국을 비교적 자주 찾는 편이다. 그러는 동안 한국불교의 현실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었고 포교가 보다 활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하게 됐다. 스님은 열반당에서 발굴된 부처님 진신사리의 일부를 2006년에 용인 보문정사에 기증했다. 인도와

한국의 불교교류가 더 활발해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였다.

“보문정사에 담이 세워져 부처님진신사리가 봉안되길 바랍니다. 주지 탁산 스님은 제가 인도에서 인도의 의식대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은사인 찬드라마니 스님이 모시고 있던 진신사리를 기증한 것입니다. 쿠시나가르 열반당의 성스러운 기운이 보문정사로 이어졌으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네쉬와르 스님은 73세라는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해 보였다. 서투른 출생일에 비해 너무 젊어 보인 탓에 입국심사에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을 정도다. 건강의 비결은 무엇일까?

“좋은 생각을 하면 건강해 집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남도 나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이치 속에 살면 행복해 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맑게 지니고 남을 위해 조금 더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구호활동과 봉사활동은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 값진 것입니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가네쉬와르 스님은 또 일하는 즐거움을 강조하기도 했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좋은 생각이 내적 동력이라면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외적 동력이라는 것이다. 마하파리니르바나 사원에서는 가네쉬와르 스님도 철저히 노동을 한다. 또 새벽마다 제자들을 가르친다. 몸과 정신이 쉼 없이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본래정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자다. 그래서 가네쉬와르 스님은 복을 비는 기도보다는 자신의 내부를 관조하는 명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쿠시나가르와 바라나시 사르나트 등에 6개의 사원을 관리하고 있는 가네쉬와르 스님은 불교대학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도 한국사찰의 형태로 학사와 기숙사를 짓고자 한다. 탐과 호수 등 한국식 조경도 생각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해 둔 상태.

“민족과 국가 종교적 편견을 다 버린 상태에서 누구나 들어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부처님의 열반성지를 성스럽게 지켜 오는데 평생을 바친 가네쉬와르 스님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계에 고루 퍼져 이 세상 전체가 성지가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임연대 기자 mian1@hanmail.net



인도로 귀화해 스승의 열반당 수호 의지 계승
보문정사에 진신사리 기증, “탐 세워 봉안하길”



용인 보문정사 주지 탁산 스님, 가네쉬와르 스님, 미얀마 대사관 통역관 지수, 취재기자(왼쪽부터).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항로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가로,세로 74cm	달마액자 (종)35 × 50cm (예)42 × 65cm	올마니반 메추족자 60 × 20cm
---	---	----------------------------------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조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였으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쪽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승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복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들 옥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유시 백색(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격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렛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서본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형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약형 의리기기 05-0626로 인증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썩 더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격외선 “열침”**이 백색(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금강의리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307 정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